‘부실 공천의 늪’서 헤매는 민주당

후보들 비리·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잇따라
광주 서구·화순·해남 전략공천 카드 만지작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 공천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실한 경선 관리로 곳곳에서 재심이 청구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확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마저 비리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사법당국의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상황 타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남·화순=민주당 후보였던 김충식 해남군수 후보가 지난 21일 경관조명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전략공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과 지역민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경선은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선에 끝까지 참여했던 김향옥 예비 후보를 포함, 일부 인사들을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가 27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속 영장이 청구된 만큼 전완준 군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위기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 등을 대적할 만한 마땅한 전략공천 카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은 전완준 후보를 대체할 만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민주당은 전주언 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기소 여부와 기소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전략공천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 상황과 서구지역 여론 등에 대한 실사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역구 의원인 조영택· 김영진 의원의 의중. 조 의원은 순리에 따라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영진 의원은 아직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언 구청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경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구청장 경선이 실시되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무안·함평=민주당은 시민배심원제가 무산되면서 경선 시기 및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무안군수 후보 선정과 관련, 이번 주 내에 최종 결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보자격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함평군수 후보 경선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성호 후보의 재심신청을 수용 의결하고, 김성호·안병호 2명의 후보로 경선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결정했다.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은 안병호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으나 전남도당 공심위가 16년 전의 전과기록을 들어 김 예비후보의 탈락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누구 없소”

한나라·민노·국민참여·진보신당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가뭄’

민주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이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각 정당은 후보자 등록일(5월13일)을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후보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7일 현재 한나라당의 경우 광주에서 광산구청장 선거에만 단 1명이 출마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 4개 구청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인사는 없는 상태다.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도 광양시장 선거에 박태진(43·대한민국 신지식인)씨와 진도군수 선거에 나서는 곽봉근(65·중앙위원회 지도위원)씨 등 2명만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 담양군수 선거에 1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후보자 등록일까지 외부인사 영입 등 전략공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광주의 경우 서구청장 선거에 강기수(58) 시당 위원장이 나섰고, 장흥군수 선거에는 박형기(55) 장흥군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노당은 최근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이 각종 잡음으로 시끄러워지면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광산과 북구 등 아직 후보가 없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인물을 구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 임택(46) 중앙당 부대변인이, 광산구청장 선거에는 송병태(71) 전 광산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전남에서는 광양시장 선거에 박형배(43) 광양항 활성화 시민행동위원장이, 여수시장 선거에는 강용주(48)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나섰다.

국민참여당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 ‘입당쇄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후보를 더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화민주당은 최근에야 후보 모집에 나서고 있어서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7일 오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허태열 위원장이 장윤석 의원 등과 구의회 폐지와 관련,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소위에서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道 기능 축소 되나

행정개편특위,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 재정 혜택

230개 시·군·구를 60~70개 통합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고 지자체로서 도의 기능을 없애려 했던 한나라당의 애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역할 논란에 시달렸던 구의회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군·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이익 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에서는 도를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위·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도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이미 특별법에 상당히 규정돼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30만명 이상에 면적이 1천㎢를 넘는 경우도 해당)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각종 재정·행정상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도의 자치권을 축소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대도시가 전남지역에서 탄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여수·순천·광양시가 통합될 경우,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를 넘는 대도시는 목포·무안·신안이 통합해야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정찬용 참여당 입당후 이병완과 단일화

정찬용(왼쪽) 무소속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참여당에 입당해 이병완(오른쪽) 예비후보와 시민참여경선을 갖기로 했다.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온 두 후보는 27일 후보 단일화 최종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단일화 방안을 합의했다.

단일화 합의안에 따르면 정찬용 후보는 오는 30일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뒤 당 상임고문과 광주시장 경선 후보로 추대돼 이병완 후보와 시민참여경선을 치르게 된다.

시민참여경선은 경선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을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한 뒤 이중 1000명 내외로 무작위 선발해 치를 예정이다. 장소와 날짜, 토론방식 등 구체적인 것은 협상 실무기구를 만들어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조보훈씨

6·2지방선거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에 조보훈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조보훈 후보는 이날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경선투표에서 선거인수 384명 가운데 239표를 획득해 144표를 얻은 구희승 후보를 누르고 순천시장 후보로 선정됐다.

이날 경선에는 당원 429명, 시민 429명 등 총 85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8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곽영표 전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곽영표(64) 전 여수정보과학고 교장이 6·2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곽 전 교장은 27일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학생이 행복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손재홍 “문화 경제도시 동구 만들것”

손재홍 민주당 광주시의원(동구 2선거구) 예비후보는 27일 “무등산을 중심으로 지산유원지, 증심사 지구, 아시아문화전당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생산적 문화경제도시 광주 동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구도심 활성화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동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 관광,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박진표·하태민기자 cki@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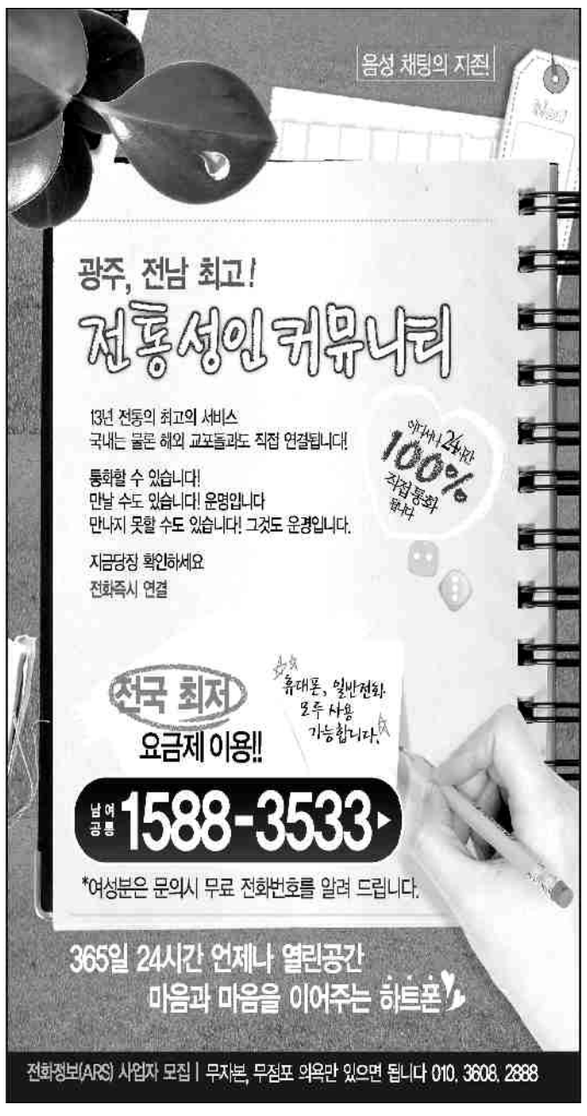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아파트론 -無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